

학령전 아동형제간의 놀이상황중 즉각적인 모방행동 연구

A Study on Spontaneous Imitation between Siblings of Preschool Children in Free-Situation

공주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전임강사 김 상 희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ong-Ju National Teacher's College*
Instructor; **Sang-Hee Kim**

<목 차>	
I. 서 론	V. 연구결과 및 해석
II. 문헌고찰	VI. 요약 및 제언
III. 연구문제	참고문헌
IV. 연구방법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preschool-sibling's spontaneous imitation during their free-plays through the observation of 41 pairs of siblings aged from 1 to seven years (from 15 to 95 months).

The results were assessed from siblings' characteristic point of view and compared with peer's imit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Sibling's imitation showed in all subjects and had various distribution according to sibling's personalities. Sibling's imitation was less shown than peer's imitation.
2. Because of sibling's several facts (e.g. sex, age etc.) Their imitation showed differently.

① Imitation appeared to decline as children grew older. Imitation showed most frequently at the age of 2 years, and decreased after that.

This result was the same as that of peer's imitation.

② Due to the effect of birth-order, the younger one showed his imitation approximately 4.3 times more than the elder one.

③ The effect of sex-composition seemed to coincide with the sex-typing hypothesis rather than the like-sex hypothesis.

④ Boy's imitation showed more frequently than girl's, but the difference was not so significant to be noticed.

3. In siblings, physical imitation was more frequent than verbal imitation, but it was reversed in peer's imitation.

4. The play-situation in which sibling's imitation showed mostly differed from that of Peer's imitation.

That is, sibling's imitation appeared in solitary play but peer's imitation did appear in associate play.

I. 서 론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과 영향력을 증가시키면서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모방(imitation)이 있다.

모방이란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와 유사한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것은 일생을 걸쳐 나타내는 행동이지만 성인보다는 아동에게 더욱 자주 나타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현상이다. 모방에는 크게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모방(spontaneous imitation)과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지연된 모방(promoted recall for the modeled imitation)이 있다¹⁾. 모방은 乳兒期에 이미 모자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학령전 아동기에는 또래 집단과 부모의 양자를 모델로 활발히 나타나다가 국민학교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생의 초기에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모방을 보이며²⁾ 그 이후에는 사회생활의 습득과 언어발달의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고³⁾ 좀더 지나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도구로서 모방을 사용하게 된다⁴⁾

학자들마다 모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관점은 다소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자연적인 놀이상황 안에서 인지적으로 요구되는 행동 안에 그 자신의 수행을 높이기 위해 많이 나타나는 행동기제로 파악되며 특히 학령전 아동기에 활발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령전 아동기는 가정내에서 가족원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받으면서 발달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가족원과의 관계를 크게 중적인 부모·자녀관계와 횡적인 형제관계로 구성된다고 볼 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연구는 전자가 주류를 이

루고 있으며 후자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특히 형제간의 모방행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진행되어오지 못하였다.

학령전 아동의 모방행동은 주로 또래집단 안에서 연구되어 왔으나 같은 횡적관계라 해도 또래집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방은 형제간에서 나타나는 모방과 상이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형제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던 前연구⁵⁾와 또래집단에서의 모방행동연구를^{6,7)} 기초로 하여 형제간의 상호작용중 모방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령전 형제간의 즉각적인 모방행동을 자연스러운 놀이상황 속에서 직접 관찰하였다. 특히 모방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방자의 특징(연령, 출생순위), 모델의 특징(연령, 성, 출생순위) 및 형제간의 성구성형태, 연령차와 함께 모방행동의 내용(언어적 모방, 신체적 모방, 언어+신체적 모방)과 모방행동 전의 놀이상황(독립, 병행, 연합)을 독립변인으로 보고 이에 따른 모방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러한 형제간에서 나온 모방행동이 또래 모방과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II. 문헌고찰

A. 모방에 대한 이론

모방은 다양한 각도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대표적인 이론으로 크게 인지이론, 사회학습이론, 정신분석이론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지이론

Piaget을 중심으로 한 인지이론에서 모방은 유아의 행동이해에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인지

의 특징적인 측면은 지각(perception), 모방(imitation), 정신적 심상(mental imagery)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모방은 인지발달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모방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속한 세계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유아가 나타내는 노력의 표현으로 감각운동기중 제 2 단계인 1~4개월에 이미 나타난다. 모방은 타인이 행동하는 것을 봄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shemata를 상기해 내고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미숙한 형태의 shema만을 갖는 초기에는 친숙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행동만을 모방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동화와 조절의 조직화에 따라 보다 어렵고 진기한 언어와 행동을 모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감각운동기의 6 단계에서는 지각적으로 현존하지 않은 대상이나 행동을 지적으로 재표현 하는 지연된 모방(deferred imitation)이라 불리우는 내적인 상징적 형태로 부재중인 모델의 행동도 회상해서 나타낼 수 있게 된다⁸⁾. 따라서 생후 2년간을 중시하였다⁹⁾.

2. 사회학습이론

Bandura는 인간은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를 모방함으로써 많은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Modeling은 특히 이미 실존하고 있는 행동을 증가시키기 보다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주요한 방식이다¹⁰⁾.

이같은 관찰학습은 크게 모델에게 주의를 해야 하는 주의과정, 모델의 행동을 상징적인 형태로 기억하는 파지과정, 행동을 정확하게 재생하는데 필요한 운동기술을 위한 신체적 성장과 연습을 통한 운동재생과정, 획득한 행동을 수행하기 위한 강화와 동기적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¹¹⁾. 발달단계중 학령전 후기 아동기(Late preschool)와 그 이후를 중시하였다¹²⁾.

3. 정신분석이론

Freud는 모방이론을 발전시킨 것은 아니지만 그의 identification의 개념은 모방행동연구에 크게 공헌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기기에 Oedipus Complex의 방어책으로 동성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증가시키므로써 동성부모와의 경쟁심을 극복하려 하는데 이때 동일시의 수단으로 동성부모에 대한 모방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한다¹³⁾고 보고 학령전 아

동기에 관심을 두었다¹⁴⁾.

B. 모방의 발달과정

모방은 Piaget에 의하면 감각운동기 제 2기인 1~4개월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에는 친숙한 행동에만 반응을 나타내며 조금 지나서 5~7개월 경에는 모델의 행동을 하나의 광경으로 간주하여 자신이 다시 그 광경을 만들고자 하여, 그 이후에는 모델행동을 동일하게 하지 못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도하는 단계이고, 2세 전후로는 친근하지 않은 소리나 행동에도 다소 정확하게 모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¹⁵⁾ 모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도 지연된 모방(deferred imitation)을 나타내게 되면서 즉각적인 모방이 감소하거나 정제되는 대신 지연된 모방의 빈도가 증가한다¹⁶⁾.

학령전 아동기에서는 부모와의 동일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성부모에 대한 모방과 함께 타인과의 관계증대에 따른 집단행동의 증가와 함께 또래친구와 교사의 모방이 나타나게 된다¹⁷⁾. 특히 4~6세에 타인을 관찰하는 양의 증가는 이 연령층의 아동이 타인의 행동을 그들 자신의 행동수행을 증진시키기 위한 근원으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4세에서 11세 사이의 아동을 연구한 Abramovitch와 Grusec(1978)에 의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즉각적인 모방행동의 감소를 보이며 이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즉각적 모방외의 다른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며¹⁸⁾, 따라서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방빈도의 감소와 함께 모방이 사회학습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도구로서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¹⁹⁾.

C. 모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모방은 크게 모방자의 특징, 모델의 특징, 모방이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²⁰⁾. 특히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또래집단내의 즉각적인 모방연구에서^{21~24)}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1. 모방자의 특징

모방자의 연령, 성별, 주의력 정도등이 이에 속

한다.

먼저 모방자의 연령에 따라 2,3세 경에 가장 높게 나타나다가 4세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25, 26}.

두번째는 모방자의 성인데 크게 성차이가 난다는 측면과 나지 않는다는 측면의 대립된 의견이 있다^{27, 28}. 전자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잘 모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며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또래친구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며 특히 큰 집단 안에서 놀기를 좋아하기 때문으로 보며, 후자는 성보다는 모방자의 관심에 의해 달라지므로 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은 주의력을 가지고 관심있게 관찰한 것을 더 모방한다. 예를 들면 아동은 자신의 성정체성 확립이 되어 자신에게 기대되는 성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이와 관계되는 행동에 주의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모방이 자주 나타나게 된다²⁹. 또 모델과의 애착이 강할수록 주의력이 높아져서 모방이 증가한다³⁰.

2. 모델의 특징

모델의 연령, 성, 지배력 등이 여기에 속하는 요인이다. 먼저 모델의 연령을 살펴보면 모델이 또래와 성인인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또래와 성인 양자 모두에게 유사한 모방경향을 나타내어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모방을 사용하며, 연령이 증가하면 양 모델 모두에서 모방은 감소한다. 그러나 성인보다는 또래모방의 빈도가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³¹.

두번째는 모델의 性別을 들 수 있다. 아동은 자신과 동성인 모델을 더 모방할 것이라는 like-sex 가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는 모델의 性 자체보다는 모델이 나타내 보이는 행동이 모방자의 성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생각될 때 모방을 더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sex-typing 가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한다³².

다음으로 모델의 지배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지배력이 있는 아동은 또래로부터 많은 시각적 주의를 받게 되어 모방의 모델이 되며, 주의를 받은 아동은 스스로 타인에게 관찰되어지고 무엇인가 과시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느끼고 그들 자신 또한 모방행동을 나타내 보

인다³³.

3. 모방이 나타나는 상황

먼저 모방은 실험실에서 조사되느냐 혹은 자연 상황에서 조사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모방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에는 사회심리학자에 의해 또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학습이론가에 의해 연구되어 왔지만 실생활의 정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70년대末부터 였다³⁴. Eandura는 잘 통제된 실험실에서 높은 빈도의 모방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많은 학자들이 실제의 상황에서도 과연 그같이 높은 빈도의 모방이 나올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관찰한 모방 연구 결과 모방은 력행전 아동기에서 상당히 자주 발생하며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다³⁵.

다음으로 모방이 나타나는 상황은 아동의 놀이 상황과 상관이 있다. 즉 모방은 성인에 대한 모방이 지시와 훈련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반면, 아동의 또래모방은 놀이상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특히 Parten(1943)의 유치원 아동의 놀이분석에 의한 놀이형태를 중심으로 Grusec과 Abramovitch(1982)는 놀이형 태를 크게 독립놀이(slitary play) 병행놀이(parallel play), 연합놀이(associative play), 모방놀이(imitative play)로 분류하여 어느 경우에 가장 모방이 자주 나타나느냐를 살펴본 결과 연합놀이(39%) > 병행놀이(38%) > 독립놀이(17%) > 모방놀이(5%)순으로 나타나서 함께 노는 놀이에서 모방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³⁶ 모방이 또래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지와 도우에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D. 형제간의 모방

모방에 대한 최근 연구는 그 대상이 또래집단이 나 교사 혹은 부모 등에 국한되어 있고 형제간에 발생하는 모방행동은 무시되고 있다. 부모-자녀 관계가 가족내의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형제 관계는 수평관계를 형성하지만 이것은 또래집단의 수평관계와는 다른 내용을 함유하리라 추측된다.

Irish(1964)는 형제의 중요한 기능으로 형제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지는 풍부한 인간관계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사회화를 진행시키고, 부모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한 것을 대신해서 형제가 보충적인 관심과 이해를 제공해 주며, 효과적인 교사로서 형제의 문제나 처한 상황을 더 잘 이해해 주고, 동료로서 함께 놀므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해준다고 하였다³⁷⁾.

사회적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 모방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형제간의 상호작용에서 모방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형제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차이가 많이 나타나나 연구조사 가구의 86%에서 동생이 윗형제를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³⁸⁾. 특히 김상희(1983)³⁹⁾는 학령전 형제간 상호작용의 연구결과 긍정적인 사회행동에 대한 모방은 13.7%, 부정적인 사회행동에 대한 모방은 2.4%를 나타내어 긍정적인 사회행동의 모방이 부정적인 사회행동의 모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혼성보다 동성형제간에서 특히 남자형제간에서 제일 빈번하게 나타났고 윗형제보다 동생에게서, 연령터울이 큰 형제간에서 더 빈번하게 긍정적 사회행동의 반응으로써 모방이 나타난 반면 부정적 사회행동에 대한 모방반응은 동성형제간 특히 여자형제간에서, 윗형제보다 동생에게서, 연령터울이 적은 형제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가 과연 일반적인 사실일 수 있으나 하는 것은 이 분야의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연구가 요구된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또래 집단내의 모방연구와 형제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형제간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모방행동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가정내 놀이상황에서 자연관찰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의 빈도가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중 즉각적인 모방행동이 연구의 초점이었으며 형제의 순위(윗형제, 동생), 성(남·녀), 성구성형태(형제간, 오빠-여동생, 자매간, 누나-남동생) 및 연령(1~7세), 연령터울(0~2년, 2년 1개월 이상)에 따라 모방행동의 빈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와 여기

서 나온 결과가 또래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된 결과로 나올 것인지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자연적인 놀이상황에서 형제간의 모방행동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2) 형제간의 모방행동은 형제간의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가?

① 연령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서 2.3세 경에 가장 빈번히 모방이 나타날 것인가?

② 동생이 지배력이 큰 윗형제를 모델로 삼아서 보다 더 모방을 나타낼 것인가?

③ 성이 같은 동성형제간이 혼성형제간보다 더 모방을 나타낼 것인가?

④ 남아가 여아보다 더 모방을 나타낼 것인가?

⑤ 연령터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3) 모방행동을 내용별로 언어적 모방, 신체적 모방, 언어+신체적 모방의 경우로 분류할 때 어떤 형태가 가장 빈번히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 4) 아동의 놀이상황을 크게 독립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로 분류했을 때 어느 상황에서 가장 자주 모방이 나타날 것인가?

본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모방행동; 모방이란 상대방과 일치하는(matching to sample) 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먼저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행동으로 정의되며⁴⁰⁾ 본 연구에서는 상대방의 행동이 나타난 뒤, 똑같은 행동을 10초 이내에 즉각적으로 나타낸 경우만을 모방행동으로 간주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나타내는 빈도로서 모방의 양을 측정하였다.

* 놀이상황; 모방이 나타나기 직전의 놀이 상황을 크게 독립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로 분류하였다⁴¹⁾.

㉠ 독립놀이(solo play)—혼자서 놀거나 상대방 가까이 있지 않는 것

㉡ 병행놀이(parallel play)—동일한 놀이감을 가지고 근처에서 놀지만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

㉢ 연합놀이(associative play)—상대방과 함께 놀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에사는 중류층 가정중 자녀가 두명이상인 집을 대상으로 형제 두명 모두가 학령전이고 상호작용이 가능한 형제 41쌍의 82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가정형편이 비슷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여의도와 반포, 영등지역 등의 S, H 아파트와 영동의 D회사 사택에서 수집되었다. 형제들의 연령은 15개월에서 84개월 사이였고, 성구성형태는 동성형제 18쌍과 혼성형제 23쌍이었다<표 1 참조>

2.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몇단계의 과정을 통해 실시되었다.

① 관찰은 전화로 미리 승낙을 받은 집을 직접 연구자와 가정관리학을 전공한 졸업생 두명등 세 사람이 가정방문을 하여 실시하였다. 관찰자간의 일치율을 위하여 두차례에 걸쳐 본 연구에 필요한 관찰내용과 항목에 대해 연구자가 관찰자를 교육시켰고, 관찰자들이 두집을 동시에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의 일치도가 90% 이상이 된 후에 각각 가정방문을 하였다.

② 관찰을 행하기 앞서 아이들과의 rapport 형성을 위하여 관찰자가 준비해 간 그림책을 보여주고 설명해 주었다.

③ rapport 형성후 1시간 동안 놀이상황 속에서 형제간의 모방행동을 연구자가 항목별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술케 하였다. 특히 아동의 모방행동을 중심으로 모방빈도와 모방의 내용(언어, 신체, 언어+신체), 모방전의 놀이상황(독립, 병행, 연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같이 관찰시 초점을 두고 기술된 항목들은 또래모방을 연구한 몇몇 연구에^{42,43)} 기초를 두고 분류되었다.

④ 첫번째 관찰후 1~7일 간격으로 재관찰을 실시하였다. 관찰은 1985년 2월 19일에서 3월 15일 까지 25일간 진행되었다.

⑤ 두차례에 걸친 모방빈도의 합을 가지고 형제간의 서열, 연령, 성구성, 성, 연령터울에 따른 평균빈도를 산출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

〈표 1〉 관찰대상자의 일반적 상황

내용	분 류	대상자수(%)	계
연령	1세 (15개월~23개월)	7(8.5)	82 (100)
	2세 (24개월~35개월)	12(14.6)	
	3세 (36개월~47개월)	17(20.7)	
	4세 (48개월~59개월)	19(23.2)	
	5세 (60개월~71개월)	16(19.5)	
	6세 (72개월~83개월)	9(11.0)	
	7세 (84개월~95개월)	2(2.4)	
성구성 형태	형-아우	10(12.2)	41 (100)
	오빠-여동생	10(12.2)	
	언니-여동생 누나-남동생	8(9.8) 13(15.8)	
성별	남아	43(52.4)	82 (100)
	여아	39(47.6)	
연령 터울	2세이내	23(56.1)	41 (100)
	2년 1개월 이상	18(43.9)	
주택형	아파트	21(51.2)	41 (100)
	주택	20(48.8)	
부/모 학력	중졸	2/3(4.9/7.3)	41 (100)
	고졸	7/12(17.1/29.3)	
	대졸이상	32/26(78/63.4)	
아버지 의직업	전문직	5(12.2)	41 (100)
	사무직	26(63.4)	
	자유업, 기타	10(24.4)	
어머니 의직업 유무	유	3(7.3)	41 (100)
	무	38(92.7)	

다.

⑥ 자료처리는 서울대학교 전산실에서 Spss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ANOVA 처리를 하였고 통계적인 유의도는 5%이하의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학령전 아동형제간의 놀이상황에서 나타난 즉각적인 모방행동을 관찰해 본 결과와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형제간 모방행동의 빈번성

전체 관찰시간중에 보여준 형제간 모방빈도는 평균 10.6회로 모방이 안 나타난 경우는 없었으며, 형제에 따라 3회에서 23회 사이의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다양한 분포는 형제들의 상호작용이 그들의 특징에 따라 많은 개인차이를 갖는 데⁴⁴⁾에 기인한다. 평균모방빈도는 김상희(1983)의 형제간 상호작용의 연구에서 나온 9.8회⁴⁵⁾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방의 빈도는 또래모방연구에서 나온 빈도(15.5회 : 12.9회)^{46, 47)}보다는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또래모방이 또래간의 상호작용의 유지를 위해서 상호간에서 모두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형제간에는 동생이 윗형제의 행동을 학습하려는 의도로 주로 동생에게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형제간의 특징에 따른 모방빈도

전체 관찰대상아동은 연령에 따른 모방빈도에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2세에 가장 자주 모방을 보이며 그 이후에는 감소를 나타낸다. {2세(10.33회) > 1세(8.14회) > 3세(6.7회) > 4세(3.8회) > 5세(3.4회) > 6세(1.4회) > 7세(0.5회)} $F(5)=3.47, p < 0.01$ 형제순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서 동생이 윗형제보다 약 4.3배 더 빈번히 나타내고 있다(동

<표 2> 연령에 따른 모방빈도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연령원	자승화	자유도	F
연령	1984.22	5	3.47**
오차	8584.03	75	
계	10568.25	80	

** $p < 0.01$

<표 3> 형제순위에 따른 모방빈도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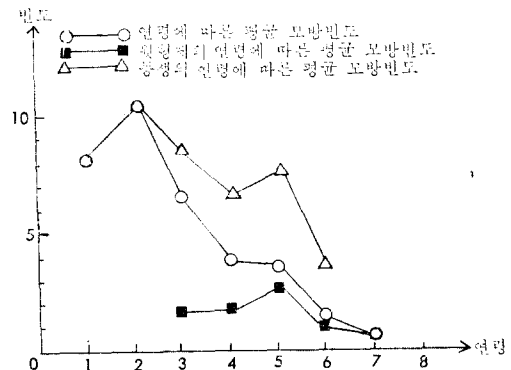
연령원	자승화	자유도	F
형제순위	2318.24	1	148.66***
오차	1247.51	80	
계	3565.75	81	

*** $p < 0.001$

생 : 8.66회, 윗형제 : 1.98회 $F(1)=148.66, p < 0.001$).

특히 동생은 2세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되는 반면, 윗형제는 5세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다. 이같이 형제순위에 따른 모방빈도에서 연령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형제간의 평균터울이 2년 1개월임을 생각할 때, 모방을 자주 나타내는 2,3세 동생을 둔 경우 그들의 윗형제도 상대적으로 모방을 자주 나타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그림 1 참조).

성구성형태에 따른 모방빈도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다(오빠-여동생{(11.4회)} > 자매간과 누나·남동생(10.5회) > 형제간(10.1회)). 동성형제간의 동생보다 혼성형제간의 동생이 오히려 더 모방을 나타냈다(8.2회 : 9회) 이러한 결과는 동생이 윗형제를 자기와 유사한 존재로 인지하여 혼성형제간 보다 동성형제간에서 더 모방을 나타낸다는 "like-me"의 설명과는 불일치한 결과이며⁴⁸⁾ 오히려 모델의 성보다 모델의 행동이 자신의 성과 부합될 때 모방을 한다는 sex-typing 가정을 따르는



[그림 1] 연령에 따른 모방빈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형제는 성역할학습이외의 다양한 학습에서 효과적인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인다. 그러나 검증결과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41쌍의 형제들은 남아가 43명이고 여아가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아는 평균 5.7회이고 여아는 4.9회로 남아가 더 자주 모방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윗형제가 남자인 경우가 여자인 경우보다 동생의 성에 관계없이 더 자주 모방을 나타내었다(4.8회 : 3.3회). 이 결과는 또래모방 연구⁴⁹⁾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나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연령터울에 따른 모방빈도의 차이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방행동이 연령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므로 형제연령중 어느 한 쪽을 고정시키지 않고 다양한 연령층의 형제간을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연령터울의 효과가 나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3. 모방행동의 내용에 따른 분류

모방행동을 내용별로 크게 언어적 모방, 신체적 모방, 언어와 신체를 동시에 나타내는 모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을 때 신체적 모방(51%) > 언어적 모방(31%) > 언어+신체적 모방(1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모방은 동생과 윗형제의 연령이 어릴수록, 언어적 모방은 동생의 연령이 클수록 빈번히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또래모방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언어적 모방(43.1%) > 신체적 모방(32.8%) > 언어+신체적 모방의 순서로 나온 것⁵⁰⁾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같은 차이는 언어발달이 학령전 아동기에 급속하게 이루어 지기 때문으로⁵¹⁾ 또래집단은 비슷한 연령수준에서 상호작용을 하여 언어적 수준이 비슷한 반면, 형제간은 연령터울에 따른 언어발달에 차이가 있으므로 언어적 모방보다 신체적 모방이 더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놀이상황에 따른 모방행동

아동의 놀이상황을 크게 독립놀이, 병행놀이, 연합놀이의 세 상황으로 분류할 때 독립놀이(57.3%) > 병행놀이(27.8%) > 연합놀이(14.9%) 순으로 모방이 자주 나타났다. 이것은 또래모방에서 연합

놀이 > 병행놀이 > 독립놀이의 순서로 자주 나타나는 것⁵²⁾과 비교해 볼 때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즉 또래집단에서는 연합놀이 중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므로 모방이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지속시켜주는 관계유지의 역할이 큰 반면, 형제간에서는 독립놀이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서 상호간의 관계유지보다는 동생이 윗형제를 모델로 그들의 행동을 학습하려는 도구로 모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관심이 많은 경우 모방을 자주 나타내므로⁵³⁾ 아동의 관심의 외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응시하는 경우를 조사해 본 결과, 놀이상황의 14.2%가 응시상황이었다. 이러한 응시는 윗형제보다는 동생에게서 더 나타났고 {F(1)=28.79, p<0.001}, 연령이 적은 아동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다 {F(5)=5.58, p<0.001}. 이것은 어린 동생 일수록 윗형제를 권위와 지배력을 가진 존재로 파악하여 주의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잦은 모방을 나타낸다고 생각된다.

VI. 요약 및 제언

학령전 아동 형제간을 놀이상황에서 자연관찰하여 그들의 모방행동을 조사해 보고 이를 또래모방

<표 4> 출생순위에 따른 모방전 응시상황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자승화	자유도	F
출생순위 오 차	46.89 130.24	1 80	28.79***
계	177.13	81	

***p<0.001

<표 5> 연령에 따른 모방전 응시상황에 관한 변량분석 결과

	자승화	자유도	F
연령 오 차	61.66 165.85	5 75	5.58***
계	227.51	80	

***p<0.001

과 비교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1. 형제간의 모방행동은 그들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모든 형제간에 반드시 나타나지만 형제간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또래모방보다는 적게 나타났었다.

2. 형제간의 모방은 그들간의 여러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또래모방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① 또래모방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른 변화를 보여서 전체적으로는 2세에 가장 빈번히 나타내다가 그 이후에 점차 감소한다. 그러나 형제순위에 따라 동생은 2세 이후에, 윗형제는 5세 이후에 감소를 나타내고 이것은 형제간의 연령차이에 기인한다.

② 형제순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서 동생이 윗형제보다 약 4.3배나 되는 모방빈도를 보였다.

③ 형제간 성구성형태에 따라 동성형제간보다 혼성형제간에서 더 모방을 자주 보였고, 특히 혼성형제의 동생이 동성형제의 동생보다 모방을 자주 나타냈다. 이것은 like-sex 가정보다 sex-typing 가정을 따르기 때문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④ 남아가 여아보다 더 모방을 보였으나 유의수준에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⑤ 연령차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3. 또래모방에서는 언어적 모방이 신체적 모방보다 자주 나타난 반면, 형제간의 모방은 반대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령전 아동기에 언어발달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므로 형제간의 연령차이에 따른 언어발달의 차이로 언어모방보다 신체모방을 더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4. 모방이 일어나는 놀이상황도 또래모방과 다르게 나왔다. 또래집단의 모방은 상호작용이 활발한 연합놀이에서 자주 나온 반면, 형제간에는 독립놀이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서 또래모방이 상호작용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형제모방은 동생이 윗형제를 모델로 학습의 도구로 더 중요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파악된다.

본 연구는 객관적인 측정도구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대상도 일부 종류중에 국한하여 횡단적인 점

근방법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초연구를 통하여 모방행동의 종단적인 연구와 함께 즉각적인 모방과 지연된 모방간의 비교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Yando, R., Seitz, V. & Zigler, E., "Imitation", N.Y.: John Wiley & Sons, 1978, p.72
2. 서봉연, 이순형저,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1983, p.256.
3. Abramovitch, R. & Grusec, J.E., "Peer Imitation in a Natural Setting," *Child Development*, 1978, vol. 49, pp.64-65.
4. Thelen, M.H., Miller, D.J., Fehrenbach, D.A., Froutschi, N.M. & Fishbein, M.D., "Imitation during play as a means of Social Influence", 1980 *Child Development*, 1980, vol. 51, p.920.
5. 김상희, "학령전 아동의 형제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이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간행, 1983.
6.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7. Grusec, J.E. & Abramovitch, R., "Imitation of Peers and Adults in a Natural setting; A Functio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vol. 53, pp.636-642.
8. Ginsburg, H. & Opper Sylvia, "Piaget's Theory of Intellectual Development", N. Y.: Prentice Hall, 1969, pp.39-71.
9. Yando, R., Seitz, V. & Zigler, E., *op.cit.*, p.22.
10. Leve, Robert, "Childhood: The Study of Development", N.Y.: Random House, 1980, pp.223-225.
11. Crain, William C., *op.cit.*, pp224-225.
12. Yando, R., Seitz, V. & Zigler, E., *op.cit.*, p.22.
13. Crain, William C., *op.cit.*, pp.129-134.

14. Yando, R., Seitz, V. & Zigler, E., *op.cit.*, p.22.
15. Papalia, Diane E. & Salley W., "A Child World: Infancy through Adolescence", N.Y.: McGraw-Hill, 1979, pp.154-155.
16. Ginsburg, H. & Opper Sylvania, *op.cit.*, pp.64-65.
17.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pp.636-637.
18.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p.641.
19. Thelen, M.H., Miller, D.H., Fehrenbach, P.A., Froutschi, N.M. & Fishbein, M.D., *op.cit.*, p.920.
20. Leve, Robert, *op.cit.*, p.240.
21.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22. Barkley, R.A., Ullman D.G., Otto L. & Brecht, J.M., "The Effect of Sex Typing and Sex Appropriateness of Modeled Behavior on Children's Imitation", *Child Development*, vol. 48, pp.721-725.
23.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24. Thelen, M.H., Miler, D.J., Fehrenbach, P.A., Froutschi, N.M. & Fishbein, M.D., *op.cit.*
25. Ginsburg, H. & Opper Sylvania, *op.cit.*, pp.61-62.
26.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p.63.
27. *Ibid.*, p.64.
28.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p.636.
29. Bryan, Janice W. & Luria, Zella, "Sex-Role Learning: A Test of Selective Attention Hypothesis", *Child Development*, 1978, vol. 49, pp.13-23.
30. Yando, R., Seitz, V. & Zigler, E. *op.cit.*, p.33.
31.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p.642.
32. Barkley, R.A., Ullman, D.G., Ott, L. & Brecht, J.M., *op.cit.*, p.724.
33.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pp.63-64.
34.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p.636.
35.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pp.62-63.
36.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p.638.
37. Irish, D.P., "Sibling Interaction: A Neglect Aspect in Family Life Research," *Social Forces*, 1964, vol. 42, pp.279-288.
38. Dunn, J. & Kendrick, C., "Sibling Love, Envy & Understanding",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p.91.
39. 김상희, *op.cit.*, pp37-39.
40.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p.61.
41.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p.637.
42.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43.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44. Dunn, J. & Kendrick, C., *op.cit.*, p.91-92.
45. 김상희, *op.cit.*, p.21, 26, 33.
46.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pp.62-63.
47.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p.638.
48. Dunn, J. & Kendrick, C., *op.cit.*, p.145.
49.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p.64.
50. *Ibid.*, p.63.
51. 주정일, 아동발달학, 서울: 교문사, 1983, pp.210-215.
52. Grusec, J.E. & Abramovitch, R., *op.cit.*, p639.
53. Abramovitch, R. & Grusec, J.E., *op.cit.*, p.64.